

수소 · 전기차 미래 전략 제시

우석대 이흥기 산학부총장, UN 웨비나서 기조강연
“탄소중립 향해 함께 가야 하는 상호보완적 솔루션”

이흥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이 2025 지속 가능한 교통의 날 웨비나에서 수소·전기차 미래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지난 25일 150여 명의 전기자동차 관련 석학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웨비나는 세계 지속 가능한 교통의 날을 맞아 전기차가 자가용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 산업 운송 등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에 미치는 변화를 조망하고, 회복력 있는 저탄소 미래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및 표준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흥기 부총장은 강연에서 탄소중립



수 있는 인프라 분야의 국내의 발전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신중 경제국에서 지속 가능한 교통 설루션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패널 토의에도 참여해 국제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현을 위해 수소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상호보완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으며,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수소모빌리티 시장 확대를 가속할

이흥기 부총장은 “수소와 전기 기반 모빌리티는 서로 경쟁하는 기술이 아니라 탄소중립을 향해 함께 가야 하는 상호보완적 솔루션”이라며 “미래 교통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과 기술 표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수소 산업의 권위자로 평가받는 이흥기 부총장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 1994년 우석대학교에 부임했다. 2008년부터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RIC)를 총괄하며 한국 수소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다. 또한 IEC 산하 연료전지기술위원회(TC 105) 의장으로서 국제 연료전지 기술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산업공학과, 전북 취업연계형 특성화 '우수'

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지능형기계 부품사업단이 2025년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인력양성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이 직접 관리하며, 지역 기업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세워,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비교과 교육을 운영한다. 이에 산업공학과 사업단은 매년 약 1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투입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보장하고, 제조업 신재생 설계·검증·평가, 3D 스캐닝·역설계, CAx 전문가 양성, AI 자율주행 프로젝트, 스마트팩토리 빅데이터 분석 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도내 기업과의 산학프로젝트를 정례화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제 기술 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해결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채용 과정에서 줄이는 역할을 해 왔다. /장은성 기자



장형관 조류질병연구소장
가금학회 '오당학술상' 수상

전북대학교 조류질병연구소 장형관 소장(수의대 교수)이 가금 분야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열린 제42차 한국가금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오당(梧堂)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 소장은 가금질병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성과를 창출하며 학계 발전에 기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심사의위원회 등 정부 주요 위원회에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방역·질병관리 체계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북대 수의과대학 최유리 박사과정생(지도교수 강민기)이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최 박사과정생은 국내 가금티푸스(FIT) 발생 사례를 기반으로 SRR 백신의 병원성 회귀 가능성을 평가한 연구를 발표해 학술적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장은성 기자



(재)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장학재단 영상촬영을 기념식을 가졌다.

“인문학의 가치, 다시 바라봐야”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
김정옥 이사장, 전북대에 80억 기부... 학생 지원
“어머님의 유산, 더 많은 이들에게 확장되도록 실천”

(재)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이사장 김정옥)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장학재단 영상촬영에서 기념식을 갖고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5년故김희경 명예이사장의 철학에서 출발한 장학재단은 '유럽 인문학이 인간의 삶을 깊게 만든다'는 신념 아래 20년째 유럽 인문학 전공 학생을 지원해 왔다. 특히 2019년 전북대에 20억 원을 기부해 유럽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확대했고, 2022년에는 삼성문화회관 시설 개선을 위해 60억 원을 추가 기부하며 지역사회 문화 향유권까지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옥 이사장을 비롯해 이향숙 이화여대 총장, 박정은 한국외대 총장, 원종필 건국대 총장 등 주요 인사와 이 장학금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장학생 30여 명 등이 함께해 20주년을 축하했다. 기념식에서는 새롭게 제작된 재단 소개 영상이 상영돼 큰 울림을

전했다. 영상에는故김희경 명예이사장의 생전 모습과 함께 장학혜택을 받은 이들의 메시지가 담겼다. 또한 박사학위 취득 장학생들의 피아노·바이올린 연주, 독회 발표, 교환학생·어학연수 장학생의 '나의 유럽 체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약 두 시간 반 동안 재단의 발자취와 성과를 공유했다. 김정옥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물집만능주의 시대일수록 인문학의 가치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며 “어머님이 남기신 유산이 더 많은 이들에게 확장될 수 있도록 재단은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의 헌신과 노고가 위기의 인문학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인류의 본성을 살리고 있다”며 “장학재단의 귀한 뜻이 앞으로 50년, 100년을 향해 더욱 큰 결실을 내길 기원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자기주도 학습센터 ‘첫 발’ 내딛다

도내 5개 지역 내년 1월 센터 개소 앞뉘... 우수기관 방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에서는 교육부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에 순창, 정읍, 김제, 장수, 고창 등 5개 지역이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된 5개 지역은 내년 1월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지역 맞춤형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학습코디네이터를 배치해 학생들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날 현장 방문단은 △학생 맞춤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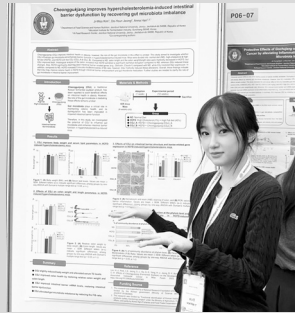
학습코칭 운영 방식 △학습공간 구성 및 시설 운영 체계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학습자 데이터 분석 및 상담 프로세스 △학부모·교사 협력 모델 등을 중심으로 예천군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전북형 모델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장은성 기자

청국장, 대장벽 손상 막는다

전북대 김지우 학부연구생 연구 성과
청국장 섭취 시 장내미생물 균형 회복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분자대사영양학연구실 김지우 학부연구생(3년)이 최근 열린 한국식품영양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청국장의 건강기능효과에 대한 기전연구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김지우 학생은 이번 연구에서 고지혈증으로 인한 대장벽 손상이 청국장 섭취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자대사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장내미생물 군집의 균형 회복이 장 손상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작용기전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전북대 식품영양학과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공동 수행한 '2025 전통 장류 기능성



김지우 학부연구생

규명(안전성 모니터링) 사업'의 결과로써, 전북대 식품영양학과가 전통 발효식품 연구와 현대 분자대사

영양학을 접목해 'K-푸드 기능성 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김지우 학생은 “학부 2학년 때부터 연구실에 들어와 실험과 분석을 배우며 한 걸음씩 성장해왔다”며 “이번 수상은 함께 연구한 교수님과 선배들 덕분이며, 학부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 장내미생물과 대사질환의 관계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안나 지도교수(전북대 식품영양학과)는 “학부생이 연구 참여 1년 만에 학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고 수상까지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실험 과정에서 보여준 끈끈한 집중력과 탐구정신이 돋보였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연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거점국립대 총장들, 서울대 10개 만들기 의기투합

유홍림 서울대 총장, “9개 대학과 적극 동참하겠다” 입장 밝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 국가 거점국립대학들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9개 국가 거점국립대학과 적극 협력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4차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 10개의 성공이 아니라, 지역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9개 거점국립대와 함께 이 과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해 일부 총장들은 중국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안정적 예산 지원 모델을 발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재 유출 대응을 위해 해외대학과의 겸직 허용, 국내 국립대 간 겸직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앞으로 서울대와의 공동 실험 체계를 강화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대학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올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서울대학교와 거점국립대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지난 22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4차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등 10개 국가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학교 안 작은 미술관 어린이&화가 행복한 그림전

내달 2일까지 소리문화전당서... 15개 도내 초교 학생 작품 전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달 2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갤러리 2진실에서 '2025 학교 안 작은 미술관 어린이&화가 행복한 그림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과 한국미술재단이 주관한 이 전시회는 지난 2023년 체결한 '학교 안 작은 미술관 기증사업 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학교 안 작은미술관'은 학교 내 복도, 유휴 교실 등을 활용해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한국미술재단 소속 작가들의 작품 기증으로 이뤄졌다. 또한, 작가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교육도 진행

했다. 전시회에서는 올해 학교 안 작은 미술관 조성에 참여한 도내 15개 초등학교 학생 작품 500여 점과, 작가작품 58점을 선보인다. 참여학교로는 전주서곡초, 전주동초, 전주서천초, 전주홍산초, 군산월명초, 군산푸른솔초, 이리서초, 이리동남초, 남원도통초, 만경초, 김제중앙초, 용진초, 번암초, 백산초, 격포초 등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한국미술재단과의 업무협약으로 2년간 총 540여 점의 작가작품을 기증받아 놓여온 작은학교를 포함한 도내 30개 초등학교에 전시했다. /장은성 기자

유보통합 정책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분청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유보통합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공사립유치원 원장 및 원감, 어린이집 관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새 정부의 변화된 유보통합 정책 안내 △2025년 유보통합 사업 성과 공유 △2026년 교육·보육 기반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 홍보 등이다. 특히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리자들이 공감·소통할 수 있는 토론포럼도 마련,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강화하고자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RISE 캡스톤 경진 AIoT 스마트 목창관리 '대상'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24일 교내에서 '2025 RISE사업 교내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캡스톤디자인 교육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학생들은 지도교수·산업체 전문가와 함께 실제 지역·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50개 작품을 출품,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6개 팀이 우수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대상 수상작인 'AIoT 융합형 스마트 목창 관리 시스템'은 열화상 분석, 온·습도 센서, AI·IoT 기술을 결합해 환자의 목창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의료현장의 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용성이 높게 평가됐다. 작품을 지도한 컴퓨터정보과 권숙연 교수는 “학생들이 현장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AI 정확도와 센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실험을 반복했다”며 “RISE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실천형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